

대학별 자체 전형의 유형과 한계

주 동 준 | 경희대 입학관리처장

I. 새 대학 입학 전형 제도

한때 본래의 취지가 가려진 채 '무시험 전형'이라고까지도 알려졌던 새 대학 입시 제도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은 수년에 걸친 준비 끝에 1998년 10월 교육부가 공식 발표한 '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 개선안'에서였다. 격변하는 21세기 사회를 눈앞에 두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 나라 고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중등 교육의 정상화 및 공교육을 제자리로 활성화시켜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중차대한 과업을 대학 입시 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야심 만만한 계획이었다. 개선안에서 교육부는 "우리 자녀들이 입시 위주 교육의 멍에를 벗고 21세기를 활기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모읍시다."라고 제안하고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 및 공급자에게 다양한 약속을 함과 동시에 각 계층에 필요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 한 바도 있다. 또, 동개선안에서 교육부는 새로운 입학 제도는 학생의 대학 선택권을 보장하고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제외하고는, 학생 선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제를 거의 완전히 철폐하였으며, 따라서 2002학년도부터 대학들은 학생 선발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율성

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선발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따라 개성을 살리면서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 후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기회를 통하여 교육 당국의 자율성에 대한 언급은 계속 이어졌고, 이 같은 획기적 자율성 약속에 따라 각 대학은 2000년 전반기에 자체 전형 유형을 포함한 2002학년도 입시 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같은 무시험 전형은 물론 아니었으나 지금까지 우리 중등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하고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대학 당국의 노력이 엿보이는 제도였다. 대학들은 이제 달라진 대학 입시의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수능 응시자를 아홉 단계로 등급화하며 정수 단위로만 성적을 제공하면서 수능 총점의 활용을 가급적 지양해 달라는 당국의 권유를 대학 측은 적극 수용하였으나, 한 줄 세우기에 익숙해 있던 대학으로서는 그들에게 부여된 획기적인 자율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인지를 고심한 흔적도 보였다. 수능능력시험은 지난 수년간 평균점이 꾸준히 상승되었고 2001학년도 대입 수능 교사 결과가 발표되자 대학 전형 요소로서 활용 방안과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시안이 본질적으로는 1994년부터 시도된 전형 방법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바 없지 않았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나라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가 대개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시도되는 새로운 입시 제도 역시 새 입시 제도가 가져다 줄 효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평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국의 모든 대학에 걸쳐 일괄 적용되게 되었다. 관계 당국의 수년에 걸친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학부모, 교사 및 일선 학교에서는 다소간의 혼란이 불가피할 듯하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당장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새 입시 제도가 시행 첫 해부터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감독 당국, 대학, 고교, 학부모 등 대학 입시 관련 당사자들의 협조와 이해로 새 제도를 빠른 시간 안에 최소의 충격으로 정착시키며, 새로운 입시 제도가 의도하였던 효과를 최대한 추출해 내는 것만이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이상의 왈가왈부하는 모두에게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다.

II. 대학 자율 전형 제도의 전제 조건

지난 수년간 활용해 왔던 우리 나라의 대입 제도 뿐만 아니라 시행을 앞둔 2002학년도 대입 제도 역시 미국 대입 제도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대학 별로 다양한 자체 전형 유형과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 내 고교 졸업생 누구에게나 입학할 허가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일정 수준의 성적을 지닌 지원자 모두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도 다수 있다. 전국적으로 최우수 학생들만이 지원하여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만 입학이 허가되는 학교

도 물론 있다. 신입생 규모가 수백 명에 불과한 소규모의 학부중심 일반대학(liberal arts colleges)이 있는가 하면 전교생이 수만여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대학, 연구 중심 대학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도 있고, 인류의 지적 자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장서 노력하는 대학도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존재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학은 각기 설립 목적과 이념을 명확히 설정하고 학생 모집시 각기 합당한 전형 유형과 방법을 특색 있게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쟁을 통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신입생의 모든 자질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때 대학에서 활용하는 평가 기준과 대학의 입학 사정 결과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정 능력만 우수하다거나 사회 봉사 실적이 대단하다고 대학 입학이 허가된다거나 하는 일은 드물다. 학생의 자질은 노련한 입시 전문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받으며 그들의 판단은 존중된다. 항목별로 배점 기준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를 수치로 남겨놓는 것과 같은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모델이 과연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제도를 어떻게 변형시켜야 우리 사회가 무리 없이 수용할 것인가? 엇비슷한 창학 이념과 교육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다수의 대학이 연구 중심을 지향하면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별다른 특색도 없는 입시 제도나 자체 전형 유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충실한 학부 교육으로 연구 중심 대학에 우수한 대학원생을 공급한다거나 기업이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학교라면 각기 차별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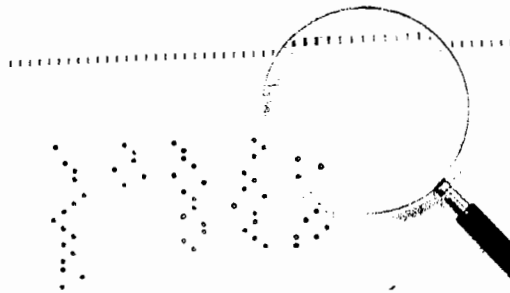
자체 전형 제도를 수립,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대학이 의미있는 자체 전형 유형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물론 대학이 자리 매김만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입학생의 수능 성적이라는 단 한 가지 척도로 대학의 우열이 결정되는 우리 사회에서 수능 성적을 등한시한 전형 유형을 수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학벌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 3년 또는 중·고등학교 6년간의 생활은 차라리 일류 대학 진학을 위한 철저한 몸부림일 것이다. 일류 대학이 자신의 인재를 거의 확실히 보장해주는 우리 나라에서, 모든 대학이 일렬 종대로 서서 명확히 정의되지도 아니한 선두를 쟁취하기 위한 맹목적이고 소모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명제가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제도가 경직화되어 있으며 평가자의 정당한 평가 또는 재량권마저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신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입시 관련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대학이 얼마나 타당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전형 유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이다.

우리가 일부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제도는 상당히 변질되어 우리 나라에서 태어났다. 물론 소수의 학생과 일부 대학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대학은 학생의 자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기준으로 입학할 허가하기보다는 어느

특정 능력 하나만을 기준으로 학생을 입학시키기도 하였다.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근 알려지기 시작하여 언론 매체를 한동안 장식한 바 있다. 조그만 착오라도 입시 부정으로 비화되어 버리는 사회 정서 속에서 대학 당국이나 입시 정책 입안자들은 자신을 방어해야 하겠기에 전형 요소를 최대한 세부 항목화하여(itemize)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각 항목의 평가 내용을 극미한 부분까지 정량화시켜 근거를 남겨 놓도록 한 것이 최근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 나라 대학의 자체 전형 유형의 근간을 이루었다. 각종 상을 수여자의 직급과 사회적 명성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적으로 점수화한 결과, 수많은 유·무명 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대회가 난립하였으며, 소위 사회 유지나 기관장들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논리에서인지 두둑한 상



선심을 쓰고 있고 여기에 따른 갖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학은 이제 수험생이 제출한 각종 서류나 공문서의 진위 여부까지 가려야 하고 전국에서 1년 내내 개최되고 있는 수많은 대회의 질을 평가해야 하는 부담도 여쩍 수 없이 지게 되었다. 대학은 2002학년도에도 시행착오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 그야말로 완벽한 제도를 준비, 시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와 문화 안에서 적절한 전형 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 국·영·수 위주의 필답 고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전형 방법이 허용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여 수험생 및 대학 모두에게 신뢰

받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전형 유형을 확립하고 입시를 시행해 나아갈 책임은 이제 전적으로 대학에 주어져 있다. 대학은 이제 싫든 좋든 간에 대학 입시와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조율하여 중등 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하고, 국민의 사교육비도 경감시켜 주며, 원하는 자질을 가지는 학생을 선발하여 새로운 지식 기반 사회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자체 전형 유형을 확립하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대입 제도에 관한 당국의 제한이 많이 완화된 현실에서 이제 대학이 수립, 시행하는 거의 모든 전형 유형은 자체 전형 유형이 되어 버렸다. 당국은 더 이상 수능 성적이나 면접의 반영 비율에 대한 주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이 대학의 자율에 일임되었고, 대학은 이제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여 전형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어진 여건하에서 볼 때 대학의 자체 전형의 유형과 한계는 과연 무엇일까?

Ⅲ. 대학의 자체 전형의 유형과 한계

금년에 시행되는 2002학년도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지므로 자체전형 유형도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시 전형은 일반적으로 특별 전형의 형태로 시행될 것이고, 정시 전형은 일반 전형의 형태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 모두에 걸쳐 자체전형의 유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 전형은 이미 1993년도부터 시행되어 우리 대학들이 이제 상당한 경험과 실적을 축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년도 입시의 경우 전체 입학생의 거의 1/3에 이르는 학생이 180여 가지의 다

양한 특별 전형 유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이제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났고, 그 결과 드디어는 2000년 후반기에 이르러 몇 가지 문제점이 언론 매체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보도된 사안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대학에 있는가 하는 점에는 물론 재론의 여지가 있겠으나, 그간 어느 정도 타성에 젖어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거나 아니면 다양성만을 높이 평가하는 듯 한 교육 당국의 독려에 힘입어 충분치 못한 준비나 연구로 다양한 형태의 전형 유형만을 나열하면서 특별 전형을 시행해 온 대학에게도 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해 보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 동안 특별 전형이 시행되어오는 과정에서 교육의 공급자인 각 대학은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 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였는가 하는 점에는 반성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대학이 독자적 기준에 의하여 선발은 하였으나 그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기의 교육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시기적으로 보아 결과가 나타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 않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에 입학은 하였으나 적절한 교육을 받아 자기 발전을 이루었는지 확실치 않은 것이다. 금년까지 5회에 걸쳐 시행된 특별 전형 입학생 중 다수의 학업 성취도가 일반 학생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다양한 특별 전형이 입시 준비생에게 반드시 환영받을 일만도 아니다. 특별 전형은 그 특성상 모집 규모가 일반 전형에 비하여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 데다 유형은 매우 다양한 관계로 어느 한 대학에서 시행되는 특정한 전형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천 명의 모집 정원

“

평가자의 정당한 평가 또는 재량권마저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신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대학이 얼마나 타당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전형 유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문제이다.

”

을 가진 대학에서 10명 미만이라는 극소수의 모집 정원만이 책정된 특별 전형 유형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와 같은 특별 전형은 문자 그대로 특별한 소질이나 능력을 가진 극히 제한된 학생들을 위한 것이며, 단기간 내에 급조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도전할 전형은 아닐 것이나 일부 수험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에 매달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교육 수요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학생을 위한 전형은 아니었다.

대다수 학생들이 도전해 볼 만한 전형, 즉 일반 전형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수험생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는 듯하다. 지난번 시행되었던 2001학년도 의 쉬운 수능은 수험생에게 부담을 줄여 주기보다는 입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만을 증폭시켰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곳이라면 수험생에게 명확한 경쟁의 물을 밝혀 주어야 한다.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 이룩한 정당한 학습 및 과외 활동의 성과에 따라 자신의 대입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체 전형 유형에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거나 중등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배려도 마련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감독 당국이 제시한 큰 틀에 그것을 위한 장치는 이미 되어 있을 것이다.

대학으로서는 자체 전형 유형을 통하여 소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것이다. 여기서 우수한 학생이란 단어가 각 대학에게 주는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이제 우수한 학과 성적만이 우수한 학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국민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다. 인성, 전문성 및 학업 적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서 대학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어느 대학이나 바랄 것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어떻게, 어떤 전형 방법을 통하여 이들을 선발하느냐 하는 것이다. 지식의 생산·전달을 사회 봉사보다 우선시하는 대학이라면 아마도 수험생의 학업 성취도를 주요 전형 요소로 하는 유형을 개발, 활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학생의 과외 활동 실적을 전형 요소로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 전형 제도를 수립할 때는 그 제도가 전형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의 인적, 재정적 자원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전형 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형의 다양성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복잡한 요소들을 경계해야 한다. 전형 제도의 단순화는 교육 수요자인 수험생의 쪽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항목이 된다. 대학 자체 전형 유형이란 결국 대학에 주어진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

재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전형 요소, 즉 수능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논술 고사, 면접 또는 구술 고사, 각종 실적물을 비롯한 서류 전형 등 각 요소들이 지닌 장점과 제한 요소를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은中等 교육을 단순한 암기나 주입식 교육으로부터 해방시켜 학생의 기본 개념 습득 정도와 조직적인 사고 및 추리 능력을 측정하도록 1994학년도에 도입된 시험이었으며, 시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현재 대입 전형에 사용되고 있는 그 어느 전형요소보다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가에서 주관하는 고사가 1969년 이래 33년간 계속해서 대입 전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할을 해 온 점을 미루어볼 때 앞으로 수도 수능 시험이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마련한 자체 전형 유형은 어떤 형태로든 일정 수준 이상 수능 시험 결과를 반영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능 시험에 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다소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 요소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교간의 격차, 성적 부여 방법의 형평성 문제, 학교간 교육 여건의 불일치 등등 수많은 요인들이 대학으로 하여금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과 학생부 성적이 주요 전형 요소로 활용되기 시작한 1994학년도 이래 많은 대학에서 실질 전형 요소로서 학생부 성적의 활용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이 2002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대학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신뢰가 어렵고 따라서 대학은 수행 평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총 200여 개에 이르는 4년제 대학 중 논술 고사

를 시행하는 대학은 소수에(2001학년도의 경우 25개 교) 불과하지만 논술 고사는 이제 대학의 중요한 자체 전형 요소로 활용되고 있고 사회적 신뢰도 일정 수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에서도 이제 8년 동안 축적한 경험을 활용하여 적절히 전형에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논술은 출제, 시행 및 채점에 상당한 경험, 노력과 투자가 따르는 전형 요소로서 대학의 수고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논술은 대학에 허용된 유일한 형태의 지필 고사로서 대학 자체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가을 시행된 수시 모집에서 일부 대학이 이미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지닌 논술 고사를 선보인 바 있다.

원고지 1,500자 내외의 분량과 2~3시간이라는 시간적 틀 속에서 시행되어 왔던 논술 고사는 수험생이나 대학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아직 채점자 또는 집단간의 형평성이나 평가의 객관성 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한 모집 단위의 채점을 동일한 채점자가 수행토록 함과 동시에 다수의 답안지로 충분한 가채점을 실시한다면 채점의 공정성도 제고될 것이다. 출제시에도 채점의 객관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막연한 논제보다는 답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할 때 채점자 상호간 결과 예측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면접으로 수험생에 대한 전인적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란은 미루더라도 면접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피면접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면접자나 피면접자에 관계없이 공정한 평가가 면접 시점과 무관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집 단위별로 표준화된 구술 시험 문항과 해답,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형태의 면


접을 관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면접이 결정적인 요소로 합격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조리 현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시간적인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대규모 대학에서는 전형 군별로 주어진 2주일 정도의 기간 안에 수험생 수천 명에게 심층 면접에 필요한 1인당 30분 내외의 시간을 허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또는 구술 시험은 각 대학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여 활용해 나가야 할 전형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수시 모집 기간 중 진행되는 특별 전형에서 활용될 전형 요소는 그야말로 다양하지만 수험생이 대학에 제출한 자료의 생산자의 목적과 평가 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주관적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오직 정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각종 추천서, 수상 실적, 실적 확인서 등과 같은 자료를 전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 점과 관련되어 일부 대학에서 각종 추천서, 수상실적, 실적 확인서 등과 같은 자료를 오직 지원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전형에서는 대학 자체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형 요소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다단계 방식과 일괄 합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전 단계의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완벽한 의미의 다단계 전형 방식은 매 단계별로 수험생의 특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매 단계에서 완벽한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괄 합산 방식은

수험생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험생으로서도 한 전형 요소에서의 부족한 성적을 다른 요소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 방법의 절충 방안으로는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되 전단계 전형 요소의 결과를 후 시행 단계의 전형 요소로 일정 비율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Ⅳ. 대학 자체 전형 제도의 전망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대학 입학 제도 역시 그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관련 당사자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처음 시도되는 자체 전형 유형이기에 시행착오도 나타날 수 있으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얻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도되는 자체 전형 유형일수록 결과에 대하여 세심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의 백년 대계를 바로 세우고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올바르게 열어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대학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여 각기 특성에 알맞은 자체 전형 유형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교육 개혁을 이룩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주동준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Kansas대 화학과에서 Ph. D. 학위를 수여 받았다. 미국 박사 후 연구원과 미국 Cornell대 화학과 방문 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희대 이학부(화학) 교수 및 입학관리처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객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연구논문으로 "Examination of EL and PL properties of MCHM-PPV and MEH-PPV: a study towards introduction of a new series of thin film EL devices", "The effect of transition metals coated by the laser ablation technique on the photoluminescence of MEH-PPV" 외 다수가 있다.